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이 고 운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and Learning Styl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Lee, Ko Eun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learning style. **Method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28 nursing students attended 4 year nursing school.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MBTI and I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χ^2 -test using SPSS/WIN 18.0 program. **Results:** The most common personality type was ISTJ (19.7%) while the most common learning styles were reflective, sensing, visual, and sequential (24.1%).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learning style and MBTI type. The higher their preference of I type is, the higher reflective ($\chi^2=7.82, p=.004$) it gets. The higher their preference of S type is, the higher sensing ($\chi^2=31.16, p<.001$) and sequential ($\chi^2=4.88, p=.021$) they get. The higher J type is, the higher sensing ($\chi^2=6.48, p=.009$) it ge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of assessment program to diagnose learning styl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We need to develop various learning strategies to improve learning health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with learners.

Key Words: Nursing students, MBTI, Learn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 일컬으며 간호교육도 임상현장을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는 자극에 반응하여 학습에 임하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학습양식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달석, 2003).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종합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최근의 연구들은 학습성과와 학업만족도

를 학습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다(김은정, 2001).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기, 인지기능, 학습양식을 진단하고 점검하면 그 해결이 가능하다. 즉 학습과정에서도 학습자의 방법론적 능력인 인지기능, 학습양식, 학습전략이 개인의 지적 능력보다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Wu, Miao, Zhu, Luo, & Liu, 2007). 김미라, 안서원, 이정모, 안덕선과 이영미(2006)는 의과대학생의 학습양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적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안서원, 김미라와 안덕선(2010)은 인지양식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연구를 통해 인지와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간호대학생, MBTI, 학습

Corresponding author: Lee, Ko Eun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727 Impi-myeon, Gunsan 573-718, Korea.
Tel: +82-63-450-7761, Fax: +82-63-450-7769, E-mail: agnes@howon.ac.kr

투고일: 2012년 2월 3일 /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5일

최근 학습환경을 보면 전자매체의 발달, 대학입학 전형의 복수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어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학습시키고자 할 때 학습자의 학습 방법론적 능력의 실패를 파악하여 교육에 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은정(2001)은 학습방법 영역인 학습양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새로운 기능의 학습과 이전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접근을 결정하는 능력과 능력개발이 필요해진다.
-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함은 적극적인 학습자를 만들어 학습효율을 높이게 된다.

학습방법론의 변화로 학습자를 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한편 학습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인지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이 영향을 주어 Myers와 Briggs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기초한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지각적 태도, 인지적 태도 및 인지통제를 포함한 인지과정에 바탕을 두고 주로 성격에서 개인차를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검사이다(김정택, 심혜숙과 체석봉, 1995). 개인차에 기인한 형태로서의 학습양식은 학습자의 심리·역동적인 활동에 기인하여 학습자의 사고, 학습, 학습전략 등과 관계규명을 할 수 있다. 이정희, 심혜숙, 신영규, 김중구와 심민보(2000)는 MBTI유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넓은 의미로 MBTI유형을 파악하면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며 교수자는 학습과 관련된 심리학적 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평가하는 또 다른 검사로 Felder와 Silverman (1988)의 Index of Learning Styles (ILS)는 학습양식 검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정보처리 선호도 특성을 첨가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학습양식을 활동-숙고, 감각-직관, 시각-언어, 순차-총체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웹을 통해서 일 년에 수백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진 체계적인 학습양식 검사로서 각 언어로 번역되어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Felder & Spurin, 2005).

학습양식이 학습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는 의학 교육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미라 등, 2006; 안서원 등, 2010; 여상희 등, 2006).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습양식에 관한 연구는 MBTI유형을 적용한 교수학습으로 권유회와 곽오계(2010) 외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소집단 협

력 학습활동을 통한 자아개념과 진로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MBTI유형이 대규모 집단검사를 통한 성격유형과 진로탐색의 목적 뿐 아니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적용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영, 유일영과 오순남(2001)은 내향성 MBTI유형에서 입학성적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대처양식이 학년,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었다. 임숙빈과 김경의(2005)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MBTI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향성이 외향성 보다,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직무 스트레스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방식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숙(2003)은 MBTI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지며 심리기능과 기질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MBTI에 관한 연구는 성격을 분석하여 심리상담 및 직업상담의 목적으로 국한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고민하는 학습환경과 학습능력을 분석하고 직접적인 학습효과를 증진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학습양식을 파악하고 진단해 줌으로써 적절한 교재와 수업방식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유형과 학습양식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교수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MBTI유형과 학습양식을 파악하고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MBTI유형의 분포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습양식의 분포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유형과 학습양식을 파악하고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도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 6,813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 중 5%인 34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후 규모비례표출법을 적용하여 학교목록과 입학정원을 나열한 후 난수를 발생시켜 추출간격에 해당하는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학과와 학생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이 중 연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학교목록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하였다. 총 300명 중 중도철회나 응답이 불완전한 72명을 제외한 228명(76.0%)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MBTI 유형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MBTI 검사를 김정택 등(1995)이 번역한 한국판 MBTI 컴퓨터 채점형(GA형)으로 측정하였다. 본 검사지는 95문항으로 45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2개의 단어 중에서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선택하게 구성되어 있는 92문항과 3개의 단어 중 1개를 선택하는 문항 2개, 그리고 3개의 단어 중 복수로 선택하는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회수한 답안지는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점수 환산과 MBTI유형 분류를 통해 4가지 차원에서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태도의 외향(Extraversion [E])-내향(Introversion [I]), 인식기능의 감각(Sensing [S])-직관(Intuition [N]), 판단기능의 사고(Thinking [T])-감정(Feeling [F]),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양식인 판단(Judging [J])-인식(Perceiving [P])으로 구분되며 본 한국판 MBTI의 Cronbach's α 는 EI 지표 .86, SN 지표 .85, TF 지표 .81, JP 지표 .88이다.

2) 학습양식

학습양식을 분류하기 위해 Felder와 Silverman (1988)의 ILS를 사용하였다. ILS는 활동(Active)-숙고(Reflective), 감각(Sensing)-직관(Intuitive), 시각(Visual)-언어(Verbal), 순차(Sequential)-총체(Global)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차원당 11개,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2지 선다형으로 2개의 문장 중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Active-Reflective .51, Sensing-Intuitive .65, Visual-Verbal .56, Sequential-Global .41이며 김미라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53~.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60~.7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조사 경험과 집단 면접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 2명을 선발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각 학교당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이며 연구수행 전 전국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 연구참여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 연구철회의 자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작성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MBTI유형과 학습양식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는 χ^2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MBTI유형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196명(86.0%)이며, 남학생은 32명(14.0%)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나이는 평균 18.2세였다. 간호대학생의 MBTI유형을 분석한 결과, 태도성향에서는 외향성(E)이 50.4%로 내향성(I)보다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인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82.0%로 직관형(N)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판단기능에서는 사고형(T)이 65.8%로 감정형(F)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대처양식에서는 판단형(J)이 53.1%로 인식형(P)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MBTI의 기능유형(S/N, T/F)과 대치양식(J/P)을 조합하여 간호대학생의 기질유형을 분석한 결과, SJ형이 48.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P형(33.3%), NF형(9.2%), NT형(8.8%) 순으로 분포하였다(Table 1).

Table 1. Frequency of MBTI Category (N=228)

Categories	Preference	n (%)
Attitude	E	113 (49.6)
	I	115 (50.4)
Perceiving function	S	187 (82.0)
	N	41 (18.0)
Judging function	T	150 (65.8)
	F	78 (34.2)
Lifestyle	J	121 (53.1)
	P	107 (46.9)
Temperament	SJ	111 (48.7)
	SP	76 (33.3)
	NF	21 (9.2)
	NT	20 (8.8)

E=Extraversion; I=Introversion; S=Sensi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ing; P=Perception.

간호대학생의 16가지 MBTI유형을 분석한 결과, ISTJ유형이 19.7%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ESTJ (17.5%), ISTP (11.0%)유형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NF형에 속하는 ENFJ (0.4%), INFJ (1.8%), INFP (1.8%)유형, NT형에 속하는 ENTJ (0.4%), INTJ (1.8%)유형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Table 2).

Table 2. 16 MBTI Types of the Subjects (N=228)

Variables	MBTI type	n (%)
ST	ISTJ	45 (19.7)
	ISTP	25 (11.0)
	ESTP	20 (8.8)
	ESTJ	40 (17.5)
SF	ISFJ	13 (5.7)
	ISFP	12 (5.3)
	ESFP	19 (8.3)
	ESFJ	13 (5.7)
NF	INFJ	4 (1.8)
	INFP	4 (1.8)
	ENFP	12 (5.3)
	ENFJ	1 (0.4)
NT	INTJ	4 (1.8)
	INTP	8 (3.5)
	ENTP	7 (3.1)
	ENTJ	1 (0.4)

E=Extraversion; I=Introversion; S=Sensi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ing; P=Perception.

2. 대상자의 학습양식 분석

간호대학생의 학습양식을 ILS로 분석한 결과, 숙고형 57.9%로 활동형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감각형이 87.3%로 직관형에 비해 가장 큰 분포차를 보였다. 또한 시각형 학습양식이 82.9%로 언어형에 비해 큰 분포의 차이를 보였으며 순차형이 52.2%로 총체형보다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3).

Table 3. Frequency of Learning Styles (N=228)

Learning styles	n (%)
Active	96 (42.1)
Reflective	132 (57.9)
Sensing	199 (87.3)
Intuitive	29 (12.7)
Visual	189 (82.9)
Verbal	39 (17.1)
Sequential	119 (52.2)
Global	109 (47.8)

간호대학생의 학습양식을 16가지 유형으로 조합한 결과, 숙고/감각/시각/순차형이 24.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숙고/감각/시각/총체형, 활동/감각/시각/순차형, 활동/감각/시각/총체형이 전체의 40% 이상을 보였다. 반면 활동/직관/언어/총체형, 숙고/직관/시각/총체형, 활동/직관/언어/순차형, 숙고/직관/언어/순차형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Table 4).

3. 대상자의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 분석

간호대학생의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활동-숙고($\chi^2=7.82, p=.004$)에서 태도성향(E/I)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내향성 대학생이 숙고 학습양식을, 외향성 대학생이 활동형 학습양식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식기능(S/N)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는 감각-직관($\chi^2=31.16, p<.001$), 순차-총체($\chi^2=4.88, p=.02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감각형 MBTI유형의 대학생이 직관형 MBTI유형인 경우보다 감각형 학습양식과 순차형 학습양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치양식(J/P)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는 감각-직관($\chi^2=6.48, p=.009$)에서 대치양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판단형 대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감각형 학습양식이 나타났다(Table 5).

Table 4. 16 Learning Styles of the Subjects

(N=228)

Variables	Sensing		Intuitive		
	n (%)	n (%)	n (%)	n (%)	
Active	38 (16.7)	33 (14.5)	8 (3.5)	5 (2.2)	Visual
Active	4 (1.8)	6 (2.6)	2 (0.9)	0 (0.0)	Verbal
Reflective	55 (24.1)	41 (18.0)	8 (3.5)	1 (0.4)	Visual
Reflective	13 (5.7)	9 (3.9)	2 (0.9)	3 (1.3)	Verbal
	Sequential	Global	Sequential	Global	

Table 5. Differences of Learning Styles on MBTI

(N=228)

Learning Style	E/I			S/N			T/F			J/P		
	E n (%)	I n (%)	χ^2 (p)	S n (%)	N n (%)	χ^2 (p)	T n (%)	F n (%)	χ^2 (p)	J n (%)	P n (%)	χ^2 (p)
Active	58 (25.4)	38 (16.7)	7.82 (.004)	76 (33.3)	20 (8.8)	0.91 (.217)	62 (27.2)	34 (14.9)	0.11 (.425)	45 (19.7)	51 (22.4)	2.56 (.072)
Reflective	55 (24.1)	77 (33.8)		111 (48.7)	21 (9.2)		88 (38.6)	44 (19.3)		76 (33.3)	56 (24.6)	
Sensing	100 (43.9)	99 (43.4)	0.30 (.365)	174 (76.3)	25 (11.0)	31.16 ($<.001$)	134 (58.8)	65 (28.5)	1.66 (.140)	112 (49.1)	87 (38.2)	6.48 (.009)
Intuitive	13 (5.7)	16 (7.0)		13 (5.7)	16 (7.0)		16 (7.0)	13 (5.7)		9 (3.9)	20 (8.8)	
Visual	98 (43.0)	91 (39.9)	2.32 (.089)	154 (67.5)	35 (15.4)	0.22 (.420)	122 (53.5)	67 (29.4)	0.75 (.250)	101 (44.3)	88 (38.6)	0.06 (.471)
Verbal	15 (6.6)	24 (10.5)		33 (14.5)	6 (2.6)		28 (12.3)	11 (4.8)		20 (8.8)	19 (8.3)	
Sequential	59 (25.9)	60 (26.3)	0 (.550)	104 (45.6)	15 (6.6)	4.88 (.021)	78 (34.2)	41 (18.0)	0.01 (.524)	69 (30.3)	50 (21.9)	2.41 (.078)
Global	54 (23.7)	55 (24.1)		83 (36.4)	26 (11.4)		72 (31.6)	37 (16.2)		52 (22.8)	57 (25.0)	

E=Extraversion; I=Introversion; S=Sensi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ing; P=Perception.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과 학습양식의 분포를 파악하고 MBTI 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MBTI 유형은 한국 대학생의 MBTI 유형인 외향성 보다 내향성, 직관형보다 감각형, 감정형보다 사고형,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더 높게 나타난 점과 일치하며(김정택 등, 199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권윤희와 박오계, 2010; 김희숙, 2003; 임숙빈과 김경의, 2005) 결과와도 일치한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김선, 김주현과 허예라, 2005; 김은경, 양은배와 김세진, 2007; 신성준, 김경수와 이동석, 2011; Johnson, 2009)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재호(2006)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여 간호계열 특성을 파악하는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외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향성의 분포와 사고형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MBTI 선호 경향이 현저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Hardigan, & Cohen, 2003; Wu et al, 2007).

MBTI의 16가지 유형별 분포에서는 ISTJ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대학생의 MBTI연구(김정택 등, 1995) 결과와 일치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권윤희와 곽오계, 2010; 임숙빈과 김경의, 2005; 임지영 등, 2001)의 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ISTJ 유형은 회계, 토목, 법률, 생산, 건축, 보건직, 사무직이 적합하며 본 연구의 보건계열 대학생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성격유형이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J유형 분포가 높은 것은 경험을 통해 사실을 판단하는 성향의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 성향이 간호사 직업과 조직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김정택과 심혜숙, 2008; 박명순, 2002)를 지지해준다. 반면 인간적이고 열정적이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호소통하는 성향의 NF정도 간호에 필요하지만(김정택과 심혜숙, 2008; 임지영 등, 2001),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낮은 분포하고 있어 현재의 간호교육에서 학생의 NF성향을 발달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학습양식은 숙고가 활동형보다,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시각형이 언어형보다, 순차형이 총체형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라 등, 2006; 안서원 등, 2010)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양식은 혼자 조용히 생각하거나 친근한 소수와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 학습이나 소규모학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필요한 간호보건계열에서는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학습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추상적 미래나 언어적 정보 보다는 구체적 지각과 시각적 정보를 선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학습환경 뿐 아니라 학습정보도 질서정연하며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학습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elder와 Spurin (2005)은 숙고보다는 활동형의 특성을 보고하였고,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itzinger, Lee, Wise, & Felder, 2005)에서도 활동형 학습양식의 선호를 보였다. 공과대학 교수와 학생의 학습양식을 비교분석한 연구(Zywno, 2003)에서는 교수자는 숙고, 직관형, 시각형, 총체형의 학습양식을 선호하여 동일 학습환경에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도 학습양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는 전공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식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수자도 자신의 학습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자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BTI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네 가지 하위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MBTI유형 중 태도성향(E/I)과 학습양식의 활동형-숙고, 인식기능(S/N)과 감각형-

직관형에서 가장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Cook과 Smith (2006)의 전문의료인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MBTI와 학습양식 간에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는 Cook (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더불어 인식기능은 순차형-총체형 학습양식 간에도 차이를 보여 감각형 MBTI유형을 가진 학습자가 더 순차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양식(J/P)은 감각형-직관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판단형 MBTI유형의 학습자는 감각형 학습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 실습 등의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습교육에서 학습자의 감각형 학습양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간호교육 특유의 교재 및 학습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 간호학문의 전문성 습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를 간호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의 MBTI유형별 학습양식의 차이를 진단하고 학습동기를 파악하여 학습설계 단계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ILS 검사는 공과대학 분야에서 개발하여 학습양식을 분석할 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구개발 당시 순차형-총체형 차원이 .41의 낮은 신뢰도를 보여 신뢰도 평가를 위한 끊임없는 후속연구를 통해 .50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Tuckman, 1999). 특히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8~.86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 보건계열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Cook, & Smith, 2006). 그러므로 전공 특성을 반영한 학습양식의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유형과 학습양식의 분포를 파악하고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TI유형은 내향성(50.4%), 감각형(82.0%), 사고형(65.8%), 판단형(53.1%)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학습양식은 숙고(57.9%), 감각형(87.3%), 시각형(82.9%), 순차형(52.2%)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셋째, MBTI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는 MBTI 태도성향(E/I)과 활동-숙고($\chi^2=7.82, p=.004$), 인식기능(S/N)과 감각-직관($\chi^2=31.16, p<.001$), 순차-총체($\chi^2=4.88, p=.021$), 대치양식(J/P)과 감각-직관($\chi^2=6.48, p=.009$)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간호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설계 개발 및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권윤희, 곽오계(2010).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학부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29-238.
- 김미라, 안서원, 이정모, 안덕선, 이영미(2006). 의과대학생의 학습양식의 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18(2), 133-140.
- 김선, 김주현, 허에라(2005).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17(2), 108-119.
- 김은경, 양은배, 김세진(2007).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 **한국의학교육**, 19(2), 143-151.
- 김은정(2001). 지식기반사회의 교수학습을 위한 체계적 학습양식 모형 연구. **교육과정연구**, 19(1), 409-430.
- 김정택, 심혜숙(2008). **성격유형의 특성: 간편 유형 해석집**(개정판). 서울: 어세스타.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Myers, I. B. Trans.). 서울: 어세스타.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김희숙(2003).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4), 385-393.
- 박명순(2002).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직업선택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6(4), 105-122.
- 반재호(2006). **계열별 대학생의(공학, 인문, 사회, 예체능) 성격유형과 e-learning 학습양식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신성준, 김경수, 이동석(2011). 성격유형이 임상수행능력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3(2), 111-117.
- 안서원, 김미라, 안덕선(2010). 의예과 학생들의 인지양식과 학습양식의 관계.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2(1), 7-13.
- 여상희, 이경우, 장봉현, 강이철, 강덕식, 곽연식, 김보완, 이윤희, 이종명, 조희중, 정제명(2006). 일개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학습양식. **한국의학교육**, 18(1), 31-39.
- 이달석(2003). 대학생의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5-269.
- 이정희, 심혜숙, 신영규, 김종구, 심민보(2000).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 (Lawrence, G. Trans.).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임숙빈, 김경의(2005). 간호사의 성격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4(4), 390-399.
- 임지영, 유일영, 오순남(2001).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5), 835-845.
- Cook, D. A. (200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cores from the index of learning styles. *Academic Medicine*, 80(10), 97-101.
- Cook, D. A., & Smith, A. J. (2006). Validity of index of learning styles scores: Multitrait-multimethod comparison with three cognitive/learning style instruments. *Medical Education*, 40, 900-907.
- Felder, R. M., & Spurlin, J. (2005). Applic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dex of learn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 Education*, 21(1), 103-112.
- Hardigan, P. C., & Cohen, S. R. (2003). A comparison of learning styles among seven health professions: Implications for optometric education.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and Practice*, 1(1), 1-7.
- Johnson, M. (2009). Evaluation of learning style for first year medic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3(1), 1-15.
- Litzinger, T. A., Lee, S. A., Wise, J. C., & Felder, R. M. (Ed). (2005).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elder-Soloman Index of learning styles*. In proceedings from the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Portland: OR.
- Wu, S., Miao, D. M., Zhu, X., Luo, Z. X., & Liu, X. (2007). Personality type of Chinese dental school applica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1(12), 1593-1598.
- Zywno, M. S. (Ed). (2003). *A contribution to validation of score meaning for Felder-Soloman's Index of learning styles*. In proceedings from the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Nashville: TN.